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수원 서호노인종합복지관 화요급식팀

도시락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수원포교당(주지 성관)에서 운영하는 수원 서호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보) 주방. 10월 18일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수원포교당 신도들로 구성된 '화요급식팀'이다. 급식팀의 하루 첫 활동은 도시락 70여 개를 마련하는 것. 도시락에는 복지관에 나오기조차 힘든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팀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다.

"난 도시락 쌀 때가 제일 기쁘더라구요. 아무래도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바로 전달이 되는 것이니까요."

한 보살이 정겹게 이야기하자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인다. 모두 공감하기 때문이다.

봉사팀은 40~60대의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돼 있다. 젊은 축에 속하는 40대 그룹은 항상 궂은일을 자처한다. 설거지, 뒷정리 등을 도맡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을 내세우기 보다는 조금 더 연배가 있는 분들이 앞장서서 화요팀의 얼굴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60대 그룹도 결코 힘든 일을 마다않는다. 노보살들의 의지가 젊은 보살들의 힘이 되기에 60대 봉사자들은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

각자 연령도 천차만별, 봉사 경력도 가지가지인 사람들 10여명이 화합의 힘으로 벌써 4년 이상 활동을 해왔다니, 무슨 비결이라도 있는 것일까. 비결을 알려달라는 질문에 급식팀은 서로 마주 보면서 빙그레 웃고 만다. 그러고는 여기저기서 하는 말한다.

"봉사는 정말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진대로 열심히 할 뿐이에요"

이는 봉사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흔한 말이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도 힘든 말이다. 그만큼 봉사가 삶의 일부로 자리 잡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호 화요급식팀 보살들은 자신들만 좋은 일을 하고, 보람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위 불자들에게도 봉사활동 시작 방법을 일러주고 있다.

"봉사하고 싶어도 길을 몰라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주위의 가까운 도반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나눔의 손길을 원하는 곳은 생각보다 훨씬 많이 있답니다." 글 · 사진/수원=김강진 기자

서호노인복지관 '화요급식팀'이 복지관 식당에서 배식하고 있다.

식재료 · TV 후원 기다립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서호노인복지관에서는 영양가 높은 식사를 만들 수 있는 식재료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부식, 쌀 등 무엇이든 마음을 내서 보시할 수 있다. 여기에 화요급식팀 보살들은 "무의탁 어르신들에게 가정에서 쓰지 않는 텔레비전 같은 가전제품을 전달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031)291-0911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투병하는 아이들의 힘이 돼 주세요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소아암환자돕기 합창제 열어

10월 30일 열린 '소아암환자돕기 한마음 합창제'에서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합창단이 공연하고 있다.

10월 30일 울산문화예술회관, 사바세계에 와서 미처 다 자라기도 전에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그 아이를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아픔 마음을 선법가로 녹이는 아름다운 공연이 열렸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의 사부대중들은 '소아암 환자돕기 한마음 합창제'를 열고 소아암 환우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 소멸되길 염원하는 '마음의 불씨'를 지폈다.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자유인의 길을 걸을 수 있길 기원하며 열린 이날 무대는 <삼세심을 전달하니> <돌 장승 우는 소식> 등의 선법가와 조혜영, 성채영 여성 2중창, 테너 장원상 독창, 꽁트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꾸며졌다.

한마음선원주지 혜원 스님, 울산 사암연합회장 눌암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어머니합창단, 거사 합창단, 어린이, 청년합창단을 비롯 한마음선원 중부경남 지원, 진주지원 어머니 합창단까지 150여 명의 단원들이 지펴 올린 '마음의 불씨'는 관중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우주 법계를 울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바쁜 직장, 가정 생활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소아암 환자들의 고통을 한마음의 도리로 녹이겠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온 6개월의 정진이 있었기에 가능한 무대였다.

1996년 어머니 합창단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한 울산지원 합창단이 주최가 돼 이처럼 큰 무대를 마련한 것은 처음. 이연숙(보만.47) 단장은 "선법가를 부르면서 느꼈던 감사함을 소아암 어린이를 돕는 일로 회향할 수 있어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했다.

공연 당일 모금된 보시금 전액인 3천만원은 10월 31일, 혜자 스님, 윤건우 신도회장, 이연숙 단장 등이 박맹우 울산 시장을 만나 전달했으며 향후 소아암 환자들을 돕는데 쓰여지게 된다. 글 · 사진/울산=천미희 기자

도와주세요

생명나눔 11월의 환우 모야모야병 양필모씨

생명나눔실천본부가 11월의 환우로 선정한 양필모(31)씨. 현재 양씨의 오른쪽 머리는 사선으로 잘려나간 모양을 하고 있다. 올 6월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받은 후 뇌혈종제거수술, 뇌부종에 대한 두개골 절제술을 연달아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언어장애까지 겪게 됐지만 양씨는 적극적으로 재활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양씨는 어린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마저 가출해 갖은 고생을 다해왔다. 20대에 다시 어머니와 재회하고 성실히 살아오던 중 갑자기 병마가 닥친 것이다.

양씨는 자신보다 어머니가 더 걱정이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투병생활을 하게 된다. "어머니를 편하게 모셔야 될 텐데…. 빨리 일어서야죠." (02)734-8050 김강진 기자

일허 스님 달마도 구입안내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에 일허 스님(밀양 영천암 주지)이 달마도 100장을 보시했습니다. 달마도(사진)는 35×45(㎝)규격이며, 작품 가격은 장당 5만원입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민수의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달마도 구입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39

영천암 (055)356-2040, 일허 스님 011-867-4747

계좌번호: 006001-04-095472, 국민은행 예금주: 김강진 (현대불교)

완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돕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완쾌되는 그날까지 각 사찰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2004-8234

도움주실 곳: 927-12-838466(농협 예금주 김형찬). 016-547-8672

hompy.buddhapia.com/homepy/helpminsu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2004-8234 /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제 1회
미주 한국 불교 포교 40주년기념 HONOLULU, HAWAII
한·미 불교인 심포지움과 친선 체육대회
천혜의 자연! 하와이에서 불자님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하와이 정법사에서 미주 포교 40주년을 맞이 하면서 한국불교 미국속의 역할과 뿌리를 내리기 위한 방법과 모색을 위하고 불자님들의 한•미간 교류를 통하여 정체성을 다지고 나아가 상호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심포지움을 개최 하오니 많은 불자님들의 배전의 성원과 많은 참석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와이 불교 심포지움 & 골프 및 관광 6일 2005년 11월 30일 출발
제 1일 (11월 30일) 하와이 호놀루루, 한미 불교인 축하 만찬법회 참석
제 2일 (12월 1일) 한미 불교인 친선 골프대회장 이동(Prince Golf Course Rounding), 시상식 및 만찬
골프장 미참석시 관광(바람산, 주정부청사, 이올리니 왕궁, 가메하메하대왕 동상 관람, 호놀루루 시청등 관광
제 3일 (12월 2일) 오하우섬 일주관광
제 4일 (12월 3일) 자유시간(와이키키해변 해수욕등 해양스포츠 선택관람)
제 5일 (12월 4일) 호텔 체크아웃 호놀루루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심포지움
일 시 | 2005년 11월 30일 (수요일) 하와이 현지시간
장 소 | 힐튼 하와이안 빌리지 호텔 코랄 볼룸(호놀루루 하와이)
주 제 | 1) 한국불교 미국속의 동포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2) 한국불교 미국속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방법 모색
토 론 | 휘광 스님 (뉴욕 불광사 주지 스님)
총진행 | 성원스님(웨스트 대학 교수)
친선체육대회(Golf)
일 시 | 2005년 12월 1일 (목요일) 하와이 현지시간
장 소 | 하와이 프린스 골프코스
특별참가자 | 불자님중에 현역 여자 프로골퍼와 가수, 탤런트등 다수 참가 예정입니다.
시상식 및 저녁만찬 | 가) 하와이 프린스 골프코스 클럽하우스
나) 홀인원상 과 3홀 3곳에서 상금 각 US $10,000 1곳에서는 벤츠승용차 제공. 우승, 메달리스트, 준우승, 롱기스트, 니어리스트, 행운상등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경기는 샷건과 켈러웨이 방식입니다.
1인 149만 5천원 선착순 80명한
▪ 축하만찬법회 참가비 ($100), 골프대회 참가비($150), 팁과 중식 (1회)요금은 별도입니다.
▪ 항공료, 호텔 숙박비 및 식사, 차량, 안내원, 여행자보험(1억원),공항세, 유류 할증료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접수처 (주)미문여행사 : 02)722-8111 | 투어오픈여행사 : 02)736-2000 | 시티여행사 : 02)737-4757

현불 프리미엄 불교성지 순례 | 부처님의 땅, 인도 - 불교의 원류를 찾아서…
불교를 잘 아는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이 엄선한,
수준높은 인도 불교 성지순례
'프리미엄 인도 12'
인도 불교 성지순례
제1일 인천국제공항 출발 델리 도착
제2일 간디 화장터, 자마마스지드(회교사원) 시크교사원, 인도문, 인도정부빌딩
제3일 갠지스강 보팅 녹야원 싸르나트박물관 중국사원
제4일 부다가야 금강보좌 나란전하
제5일 나란다 대학, 라지기르 도착 왕사성, 영취산 영산회상, 죽림정사
제6일 유마경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바이샬리 순례
제7일 부처님의 열반지 쿠쉬나가르 열반지 순례 열반지, 다비터
제8일 부처님 생장지 카필라성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 네팔 관광 | 마야데비사원, 구룽족 순례, 아숙필러 순례
제9일 사헤트/마헤트 방문 앙굴리 마라터, 간다쿠티/ 보리수 참배
제10일 아그라 타지마할, 더알박사원
제11일 델리투어 연꽃사원 차탈푸르 흰두교사원,쿠툽탑
제12일 델리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11월 28일 출발 | 접수마감 : 11월 15일
동참금 : 235만원
■ 전일정 특급호텔 투숙
■ 불교를 잘 아는 현대 불교신문 여행사업팀의 수준높은 불교성지 순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지마할 아그라 성 싸르나트 마메크탑 부다가야 대탑 쿠쉬나가르 열반당
현불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 THE HYUNDAE BULKYO TRAVEL TEAM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
접수처 : TEL 02)2004-8295~6 | 사업팀 최언규(원각) 팀장 : 018-366-1002
협력사 미문여행사 02)722-8111 / 인솔 법사 : 이선행 스님
■ 지사 / 지국 안내 : 부산지사 051)632-0064 / 대구지사 053)768-8008 / 호남지사 062)375-9986 / 대전 · 충북지사 043)732-5560 / 울산지사 052)272-0909 / 경남동부지사 055)353-1196 / 경남서부지사 055)547-3469 / 영주지국 054)634-3429